

## 6세기 전후 전북 동부지역 가야세력과 신라의 관계에 대하여

김선숙\*

###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맺음말     |
| 2. 6세기 전후 전북 동부지역의 정세            | 참고문헌       |
| 3. 6세기대 전북 동부지역의<br>가야세력과 신라의 진출 | <Abstract> |

### 국문초록

문헌상으로는 금관가야가 532년(법흥왕 19)에, 대가야가 562년(진흥왕 23)에 각각 멸망하였다. 그런데 『일본서기』 흠명기 기사 속에는 562년경 신라가 가라국과 안라국을 비롯한 가야 10개국을 모두 멸망시킨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학계에서는 신라에 의한 가야 병합이 대가야의 멸망을 전후하여 최종 투항 상태를 전하는 것일 뿐 일시에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 가야 10개국 가운데 졸마국과 마찬가지로 임예국 역시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그럼에도 기존에는 졸마국을 함양에, 임예국을 의령에 각각 비정해 왔다. 그런데 임예국은 『일본서기』에 따르면 신라에 의해 토벌된 가야 소국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된 나라이면서 걸손국 산청과 비교적 가깝고 장수 등 전북 동부지역과도 근거리에 위치한다.

따라서 비록 명확한 증거자료는 없을지라도 임예국의 위치를 다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함양(咸陽)을 지목

\* 사단법인 국학연구소 연구원, E-mail: 1997-sun@hanmail.net

하였다. 함양은 동쪽으로 거창과 산청, 서쪽으로 전북 남원과 장수, 남쪽으로 하동, 북쪽으로 거창군과 접해 있다. 그러므로 졸마국은 함양이 아닌 김천에, 임예국은 의령이 아닌 함양에 각각 비정하는 것이 좀더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신라는 5세기 후반 이후부터 이미 대가야 및 금관가야 등 가야 여러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그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도 강화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구려 및 백제의 동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즉, 백제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고구려의 남하에 정치·군사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백제의 성왕은 즉위하자마자 신라에 사신을 보내거나 고구려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자 신라에게 청병을 요청하는 등 신라와는 되도록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또한 그는 가야지역으로 백제의 군대를 파견하여 성을 쌓게 하는 일까지 추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는 가야지역에 대한 신라의 진출에 대해서 외교책을 통해 관리하려 했을 것이다.

반면 신라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에 걸쳐 전북 동부지역 가야세력과의 접촉이나 교역을 통해 백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신라는 가야를 둘러싼 당시 주변국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가야 남부지역에 진출하는 대외정책을 펼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신라에 의한 전북 동부지역으로의 진출 루트는 운봉고원에서 진안고원으로 넘어가는 방향이었고 전북 동부지역의 남원 월산리나 두락리 일대는 내륙교통로로서 신라가 가야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핵심요충지이며 철의 생산지가 분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이곳에서 신라 관련 유물이 발견된 것뿐만 아니라 전북 무주에서도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되는 신라 유물이 발견된 것이다.

주제어 : 가야, 신라, 진안, 운봉, 임예국, 함양

## 1. 머리말

현재의 행정구역인 전라북도에는 고대(古代)에 백제와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기 전부터 선주(先住) 세력으로서 마한(馬韓)제국은 물론 가야의 정치세력이 점령하고 있었다. 특히 백제와 신라가 진출하기 이전부터 가야세력이 전북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 사실은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성과를 통해 점차 밝혀지고 있다.<sup>1)</sup> 지금까지 고고학계에서는 전북 일대에서 발굴된 다양한 가야계 유물과 유적 등의 분석을 통해 가야인들의 생활상을 탐구해 왔다.

학계에서는 최근까지 전북지역에 산재한 취락을 권역별로 분류하여 연구하

1) 전상학, 2018, 「전북지역 가야고분의 현황과 특징」, 『호남고고학보』 59, 호남고고학회.

기도 하였고,<sup>2)</sup> 전북지역을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살펴보기도 하였다.<sup>3)</sup> 전북의 동부지역은 전형적인 산악지대로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의 산줄기가 서부의 평야지대와 자연경계를 이루며 수계상 금강과 섬진강, 낙동강의 지류인 남강유역 등으로 나뉜다.<sup>4)</sup> 전북 동부지역으로는 장수·진안·무주·남원·임실·순창 등을 들 수 있는데 고고학계에서는 대가야권에 포함시키고 있다.<sup>5)</sup>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가야권역에 해당되며 신라·백제·가야 등 삼국의 각축장이면서 신라의 유물이 확인되는 전북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6세기 전후 전북지역의 정세 및 가야세력과 신라의 외교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북지역 가야세력에 대해서는 주로 백제와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이는 사료상으로는 전북지역의 고고학적 발굴성과 등에서 신라보다는 가야 및 백제와 관련된 자료들이 좀더 많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란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시기 신라는 나물왕대 이후 실성·눌지·자비·소지·지증왕대를 거쳐 법흥·진흥왕대에 국력의 신장과 영역(領域)이 확대되어 나가던 상황이었다. 이 무렵 신라는 중고(中古)시기에 해당하는데 백제와 왜는 물론 가야세력과도 친선(親善)과 군사적 충돌을 반복하며 대외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런데 신라는 그 이전시기인 진한(辰韓)의 사로국(斯盧國) 시절부터 이웃한 변한(卍韓·弁韓)의 여러 나라와 영역을 둘러싸고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벌여 왔다.<sup>6)</sup>

그런 점에서 국력이 신장되던 6세기 전후 신라의 전북 동부지역 진출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다만 전북 동부지역에 존재하는 신라와 관계된 유물이나 유적 등은 물론 문헌자료 등에서 백제에 비해 현저히 적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전북 동부지역에서의 가야세력과 신라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상황과 함께 이 글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무리한 억측이나 비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서지만 최근까지 발표된 학계의

2) 조성희, 2020, 「3~7세기 전북지역 취락의 고고학적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3) 김재홍, 2012, 「전북 동부지역 백제, 가야, 신라의 지역지배」, 『한국상고사학보』 78, 한국상고사학회; 송영근, 2020, 「5~6세기 전라 동부지역의 가야제국과 백제의 진출」, 인제대학교 대학원 역사고고학과 석사학위논문.

4) 광장근, 2011(c), 「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63, 한국고대사학회, 4쪽.

5) 朴天秀, 2006, 「대가야권의 성립과정과 형성배경」, 『土器로 보는 大加耶』, 대가야박물관.

6) 최병운, 1992, 「신라 상고의 영토 변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연구성과에 힘입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2. 6세기 전후 전북 동부지역의 정세

### 1) 6세기 이전 전북 동부지역 가야세력의 동향

우리나라 남쪽의 한가운데 위치한 전북 동부지역은 지정학적인 이점으로 인해 선사시대부터 교통의 중심지로서 전략상 요충지를 이루어왔다. 고대사회에 이르러서도 외부세력과 상호 교류하는 데 대부분 이용해야 하는 교통로가 이 지역을 통과하였다. 이로 인해 전북 동부지역에서는 철산지의 장악 및 교통로의 관할을 두고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역학관계가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이들 삼국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하고 있다.<sup>7)</sup>

전북 동부지역은 크게 진안고원과 운봉고원(아영분지)으로 나뉜다. 전자에는 장수·진안·무주가, 후자에는 남원이 각각 해당되는데 운봉읍·인월면·아영면·산내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안고원은 백두대간과 금남정맥, 금남호남정맥 사이에 형성된 해발 400미터 내외의 산안지대로서 호남의 지붕으로 불리며 금강을 중심으로 남한강과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 남강, 황강유역을 하나로 묶는 내륙 교통로의 가교 및 교량 역할을 담당하였다.<sup>8)</sup>

진안고원에서는 마한·백제·가야·신라의 각축장이 되어 고고학상으로 시기적·지역별 양상이 나타난다. 이 지역에서는 고총(高塚) 240 여기가 발견되었다. 그 가운데 장수 삼고리고분군에서는 고령의 지산동 30호분 출토품과 유사한 고배형기대<sup>9)</sup>가 출토된 바 있으며 그 제작 시기를 대략 5세기 중반무렵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0)</sup> 5세기 전반에서 6세기 전반에 이르는 오랜 기간동안 고총

7) 광장근, 2018(e), 「전북의 가야문화유산 현황과 과제」, 『가야역사문화권 연구 조사 및 정비와 국가균형발전』, 전북연구원.

8) 광장근, 2011(c), 「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63, 한국고대사학회, 84쪽.

9) 고배형기대는 분포범위가 고령 지역을 중심으로 합천·거창·함양·진주 등을 비롯하여 백제와 경계에 위치한 소백산맥 서쪽의 남원·임실 등지에서 넓게 발견되고 있다. 고배형기대는 아라가야와 소가야 양식에 비해 대각의 폭이 넓어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대각에는 아치형 투창을 장식하다가 삼각형 투창으로 변하며 배신에는 송엽문이 주로 시문되다가 무문화되는 과정을 거쳐 대가야의 멸망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한국고고학사전』, 고고유물편-가야 시대.)

10) 朴天秀, 2006, 앞의 논문, 96쪽.

(高塚)이 밀집분포하고 있는 장수권(장계·장수분지)과 주변지역에는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sup>11)</sup>

특히 장수는 최근 소위 ‘장수가야’로 불리며 학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에서는 대가야토기가 부장된 고총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장수지역의 가야세력은 대가야와 연맹관계를 맺거나 긴밀한 교류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12)</sup>

최근까지 전북 동부지역에서는 약 180기의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가 발굴 조사되었고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고분군을 포함하면 약 390 여개로 더 많은 수의 고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중이라 한다.<sup>13)</sup> 그런데 기존에는 전북 동부 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수혈식석곽묘가 대가야의 영향을 받아 등장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그 이전부터 그 지역에 기반을 둔 세력집단이 주요 묘제로 채택하여 발전시킨 묘제로 보기도 한다.<sup>14)</sup>

한편 고고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진안고원의 장수지역 고분군 뿐 아니라 운봉고원의 남원지역 두락리와 월산리 고분군 및 이들 지역에 분포한 봉화와 봉수대 등을 중심으로 가야세력을 연구해 왔다. 운봉고원은 운봉천이 흐르는 북동쪽과 구룡 계곡이 위치한 남서쪽 가장자리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600~1,300미터 사이의 높은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450~550미터 고도의 분지 지형을 이루고 있다. 소백산맥을 따라 내려오는 마루금(산마루와 산마루를 잇는 선)은 운봉고원의 북쪽 경계를 이루다가 고원의 남서쪽에서 고원 내부를 관통하여 지리산 노고단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운봉고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과 북동부지역은 지표면을 흐른 하천이 낙동강에 흘러드는 낙동강유역에 속하지만, 남서부의 일부 지역은 섬진강유역에 해당된다.<sup>15)</sup> 운봉고원이 위치한 남원의 운봉읍은 최근 발견된 남원의 사석리 고분군을 통해 마한의 영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sup>16)</sup> 삼국시대

11) 전상학, 2013, 「진안고원의 지역성」, 『호남고고학보』 43, 호남고고학회.

12) 전상학, 2011, 「장수가야의 지역성과 교류관계」, 제39회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상류지역 주제발표 4, 한국상고사학회; 김재홍, 2012, 앞의 논문, 116쪽.

13) 전상학, 2018, 「전북지역 가야고분의 현황과 특징」, 『호남고고학보』 58, 호남고고학회, 48쪽; 문송식, 2021,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 고분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6쪽.

14) 광장근, 1999, 『호남 동부지역 석곽묘 연구』, 서경문화사.

15) 이광률, 2011, 「운봉고원」, 『한국민족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6)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석리 8호분은 마한의 전통적인 분규모의 축조기법과 백제의 석실묘가 결합된 형태로서 마한의 소멸과 백제의 진출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출처 : 전북도민일보, 2012. 9. 12일자)

이후 백제의 고룡군(古龍郡)이었다. 그러다가 신라가 이 지역을 탈취하여 모산현(母山懸)이라 불리는 국경 요새지로 삼았고 757년(신라, 경덕왕 16)에 현재의 지명인 운봉현(雲峰縣, 雲城)으로 개칭하였다고 한다.<sup>17)</sup>

운봉의 지명 유래와 관련하여 두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즉, 개마고원에 위치한 두운봉(頭雲峯)에서 따온 이름으로 보는가 하면, 두운봉 일대에 거주하였던 발해 유민들이 운봉에 정착하면서 두운봉과 비교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sup>18)</sup> 운봉고원에서는 유곡리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고분군과 160 여기의 중대형 고총이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고분에서는 금동신발과 철제초두, 수대경, 계수호 등이 출토되어 이 지역 정치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sup>19)</sup>

고고학계에서는 운봉고원에서 5세기경부터 백제와 교섭이 가능한 지형학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월산리고분군과 청계리고분군 등 대형의 고총고분을 조영한 가야세력이 이주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sup>20)</sup> 전북 동부지역에는 백두대간 산줄기와 섬진강 중류지역인 오수천을 따라 산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만경강유역에서 섬진강 상류지역으로 진입하는 길목인 호남정맥의 슬치 부근, 공주와 부여 방면에서 진안고원으로 진출하려면 주로 넘었던 금남정맥의 싸리재 부근, 금산분지의 북쪽을 휘감는 산줄기에도 산성이 밀집되어 있다. 이는 주로 백제 또는 영산강유역에 기반을 둔 세력집단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sup>21)</sup>

전북 동부지역에서는 지금까지 110여 개소의 봉화가 확인되었다. 하나는 장수군 장계분지 방면으로 향하는 여러 갈래 옛길을 따라 선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통과하고 있으며 산봉우리 정상부에는 장방형의 봉화대를 만들고 석성을 한 바퀴 돌렸는데, 조선시대 돌로 연대를 쌓고 그 위에 연조를 설치했던 봉수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 불을 피우던 5개의 연조와 불을 피우기 위한 재료를 보관하던 고사, 그리고 연대와 연조 주위를 두른 방호벽으로 구성된 조선시대 봉수와는 확연히 다르다.<sup>22)</sup> 전북 동부지역의 봉화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80여 개소가

17) 운봉읍사무소, 2022, 『운봉읍 역사』, 남원시.

18) 이광률, 2011, 앞의 책.

19) 전상학, 2020, 『고고자료와 문헌으로 본 상기문국』, 『전북학연구』 2, 전북학연구원, 78쪽.

20) 오동선, 2020, 『남원 아영분지 고총고분 조영세력의 변천과 성격』,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과 월산리고분군 조사성과와 의의』,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남원시.

21) 광장근, 2010(b), 『전북 동부지역 가야와 백제의 역학관계』, 『백제문화』 43,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원, 43~45쪽.

배치되어 있고 특히 100여 기의 가야계 고총이 자리한 진안고원의 장수권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면서 그곳을 방사상으로 에워싸고 있는데 봉화가 변방의 급한 소식을 중앙에 알리는 통신제도라는 봉화 본래의 역할만을 생각한다면, 이 봉화들의 설치주체는 진안고원의 장수권에 기반을 둔 가야세력과 관련성이 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전북 동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산성 및 봉화의 분포양상은 운봉고원의 가야세력이 백두대간을 넘어 섬진강 하류지역으로 진출하여 이 일대를 가야의 영향권으로 편입시킨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23)</sup>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된 가야사 연구에서는 전북지역이 대가야 영역에 속하였던 것으로 인식하고 기문<sup>24)</sup>이 임실, 남원 등 섬진강유역에 존재하던 정치체라는 견해가 그동안 통설로 받아들여졌다.<sup>25)</sup> 그러나 최근 남원에서는 10여 기의 고총으로 이루어진 사석리 고분군이 발견된 바 있고 이 고분군은 지난 1987년 진행된 남원 지방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 그 실체가 확인되었으며 대강면 행정복지센터 북쪽에 자리하는 야트막한 구릉 사면부에 10여기의 봉토분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된 양상을 보여주는데 두 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학술적 가치가 재조명되어 1차 발굴조사(3호분)에서는 횡혈식석실분(돌방무덤)의 봉토를 따라 주구(도랑시설)가 확인됐다. 이는 섬진강유역의 주요제가 백제의 진출로 인해 마한의 묘제인 분구묘에서 횡혈식석실분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2차 발굴조사(8호분)에서 확인된 횡혈식석실분은 익산지역의 왕릉급 무덤을 제외하면 전라북도지역에

22) 곽장근, 2020(f), 『삼국시대 가야 봉화망과 반과국 비정』, 『전북학연구』 2, 전북연구원, 16쪽.

23) 곽장근, 2010(b), 앞의 논문, 45~46쪽.

24) 기문은 한자로 ‘己汶’ 또는 ‘己文’이라 적는다. 전자는 주로 『日本書紀』 繼體紀에서 볼 수 있고, 후자는 『梁職貢圖』 百濟國記 가운데 ‘旁小國’으로서 ‘上己文’이란 글자의 己文國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三國史記』에는 支溇州九縣(卷37, 雜志6, 地理4)에 “己汶縣 本今勿”이란 기사가 실려 있고 熊川州(공주)에 今勿縣이, 完山(전주)에 남원(古龍郡)이 각각 보인다. 기문현인 금물현은 그 위치가 현재의 충남 예산군 고덕면에 비정되어 있다.(정구복 외, 1997,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 하, 한국학중앙연구원, 436쪽.) 이 외에 기문이란 지명은 『三國史記』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우륵이 만든 12곡의 가야금 소재에 각각 ‘上奇物’·‘下奇物’이란 이름이 전하는데 여기에서의 ‘奇物’은 곧 기문을 가리킨다. 따라서 기문은 남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기문의 위치를 섬진강 유역의 남원지역이 아닌 낙동강 유역의 김천 開寧의 감문국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감천과 낙동강이 만나고 있는 선산의 낙산동고분군까지 포함하는 지역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홍성화, 2014, 『己汶, 帶沙 지명 비정에 대한 일고찰』, 『사총』 82,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96~203쪽.)

25) 今西龍, 1922, 『己汶伴跋考』,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김태식, 1993, 『加耶聯盟史』, 일조각.

서 조사된 고분 중 가장 큰 규모(길이 347cm, 너비 185cm)를 보여 이 지역 최상위 신분층의 묘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되고 있다.<sup>26)</sup>

또한 기문과 인접한 대사(帶沙)지역이 지리적으로 신라와도 가깝고 ‘기문이 임나의 동북이고 신라와 서로 다투는 위치에 있다’고 한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의 기사<sup>27)</sup>에 의거하여 기문을 섬진강 유역의 하동이 아니라 임나와 신라 사이에 있는 낙동강 유역의 달성 지역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sup>28)</sup> 그리고 지금까지 남원 운봉지역에서 발견된 대가야계 유물과 유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강 수계의 운봉지역이 기문이란 견해가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sup>29)</sup> 아울러 이들 지역에서는 3세기부터 아라가야계나 소가야계의 문화도 찾아볼 수 있다. 고고학상에서 아라가야는 3세기대부터 4세기대까지 가야세력을 대표하여 남해안 일대는 물론 백제 및 왜와도 활발히 교역하던 세력으로 등장하다가 5세기 초반을 전후하여 고구려의 남하와 포상팔국 사건을 계기로 점차 쇠퇴하고 이를 대신해 소가야가 세력을 확대해 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30)</sup>

## 2) 6세기 초·중반 전북 동부지역 가야세력의 동향

6세기 초반 전북 동부지역에는 사료상에서 기문(己汶·己文)과 반파라고 불린 가야계 정치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먼저 기문은 상·중·하의 삼기문(三己

26) 천지일보, <남원 사석리 고분군 전북 기념물 된다>, 2022. 6. 8일자.

27) 『新撰姓氏錄』左京皇別 下 吉田連條, “任那國奏曰 臣國東北有三己汶地(上己汶·中己汶·下己汶) 地方三百里 土地人民亦豐饒 與新羅國相爭”

28) 김현구 외 3인 공저, 2003,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II)』, 일지사, 62~63쪽; 홍성화, 2014, 위의 논문, 191~196쪽.

29) 유영춘, 2018, 「철기유물로 본 전북지역 가야의 교류」, 『호남고고학보』 59, 호남고고학회, 83쪽.

30) 포상팔국은 낙동강 하류 및 지금의 경상남도 남해안 일대에 거주하던 8개의 가야 제국을 말한다. 이들 8개 나라의 이름은 모두 전해지지 않지만 『삼국사기』 勿稽子傳에 보이는 骨浦國(지금의 昌原 또는 馬山), 柒浦國(지금의 咸安郡 漆原), 古史浦國(지금의 鎭海 또는 固城), 그리고 《삼국유사》 권5 물계자전에 나오는 史勿國(지금의 泗川), 古自國(지금의 固城, 고사포국과 동일지역으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다.), 保羅國(위치 미상) 등이 이에 속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포상팔국) 『三國史記』 卷2, 奈解尼師今 14年條에 의하면 왕 14년(209)에 포상팔국이 가라를 침략하려고 꾀하며 가라의 왕자가 신라에 구원을 청하였다. 이에 신라의 태자 于老와 伊伐凌 利音이 六部の 군대를 이끌고 가서 구원하여 八國의 장군을 죽이고 그들이 잡아간 6,000명을 빼앗아 돌아왔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가라는 대체로 김해의 금관가야로 보고 있는데 고고학상으로 볼 때 그 시기는 3세기대가 아니라 5세기초이며 포상팔국은 소가야를 중심으로 한 해상세력으로서 남해안과 금강수계의 관계망을 둘러싸고 소가야가 경쟁대상인 아라가야를 공격한 사건으로 보기도 한다.(박천수, 2006, 앞의 논문, 94쪽.)



汶)을 충칭하며 여러 역사서에서 백제와 갈등을 벌이는 전북 동부지역 가야세력으로 등장한다. 이들 삼기문 가운데 상기문(上己汶)은 대체로 남원시 운봉읍 등 운봉일대에, 하기문(下己汶)은 장수지역 혹은 섬진강 수계에 따른 지역으로 보고 있으며 중기문은 삼기문 가운데 하나로 명칭만 전할 뿐 존재 자체가 의문일 정도로 미미하다.

상기문과 하기문은 『삼국사기』에 각각 상가라도(上加羅都)와 하가라도(下加羅都)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야의 악인(樂人) 우륵(于勒)이 만든 가야금 12곡 가운데 주요 소재로 등장한다.<sup>31)</sup> 이 곡들은 5~6세기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가야 소국들을 정리한 것이다. 소위 가야 12곡으로 불리는 이들 지역의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다섯 번째로 언급된 사물(思勿)을 사천으로 보는 것 외에 일부 비정을 할 수 없다거나 엇갈리고 있다.

그런데 우륵 12곡에서 네 번째로 언급된 달이(達己)는 음운상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소위 임나 4현의 상·하다리(哆唎)<sup>32)</sup>와 같다고 판단된다. 임나 4현의 위치비정에 대해서는 가야 12국만큼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까지 학자마다 서로 다른 견해가 제시되어 있는데,<sup>33)</sup> 대체로 여수, 순천, 남원, 하동 등 섬진강 유역에서 찾고 있고 일부 전라남도 전역에 미치는 지역으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다. 즉, 상·하다리는 전남 영산강 동안 지역에, 사타는 전남 구례 군에, 모루는 전남 영광·고창·무안 지방에 각각 비정된다는 것이다.<sup>34)</sup>

상·하기문과 달리 중기문은 현재까지 뚜렷한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남원시 중심부 일대를 가리키던 지명으로 보기도 한다.<sup>35)</sup> 특히 남원은 분지형태의 운봉고원이 펼쳐진 지역인데 옛 가야계 세력인 기문국이 자리하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는데,<sup>36)</sup> 이 지역의 가야세력이 5세기 후반인 479년경 중국 남제(南齊)에 사신을 보낸 가라국<sup>37)</sup>과 연계하여 중요한

31) 『三國史記』 卷32, 雜志1(樂), 加耶琴條, “于勒所製十二曲 一曰下加羅都 二曰上加羅都 三曰寶伎 四曰達己 五曰思勿 六曰勿慧 七曰下奇物 八曰師子伎 九曰居烈 十曰沙八兮 十一曰爾赦 十二曰上奇物 …”

32) 『日本書紀』 卷17, 繼體天皇 6年 冬11月條, “百濟遣使貢調 別表請任那國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四縣 哆唎國守穗積臣押山奏曰 此四縣 近連百濟 遠隔日本 …”

33) 장미애, 2020, 『6세기 백제의 가야진출에 대하여』, 『한국고대사연구』 97, 한국고대사학회, 52~60쪽.

34) 김현구 외 3인 공저, 2003, 앞의 책, 46쪽.

35) 송영근, 2020, 앞의 논문, 30~31쪽.

36) 광장근, 2017(d), 『호남 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 현황』, 『경남발전』 138, 경남발전연구원, 36~40쪽.

37) 『南齊書』 卷58, 東南夷列傳, 加羅國條, “三韓種也 建元元年 國王荷知來獻 … 加羅王荷知 … 可授輔國將軍本國王”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sup>38)</sup>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당시 남제에 사신을 보낸 가라국을 김해의 금관가야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sup>39)</sup> 그러나 5세기대 당시 금관가야가 4세기말 이후부터 진행된 고구려와의 큰 전쟁 이후 가야 제국 내에서의 영향력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었으며 금관가야의 주요제인 주·부곽식 목곽묘가 5세기초까지 계속 조영되다가 그 이후로 사라졌다는 점에서<sup>40)</sup> 학계에서는 대체로 당시 남제와 교류한 가야국을 대가야로 이해하고 있다.<sup>41)</sup> 그 물적 증거로는 전북 남원 월산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청자계수호와 자루술 등을 들고 있는데 이 유물들은 중국 제 청자류로 서해안과 가까운 익산 입점리, 고창 봉덕리, 부안 죽막동 등지에서 발견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들 출토 유물은 마한시절부터 교역해 온 기존 해로를 통하거나 백제의 도움으로 남제와의 교류를 통해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sup>42)</sup> 『속일본후기(續日本後紀)』에는 기문지역이 백제에 예속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sup>43)</sup> 『양직공도(梁職貢圖)』 가운데 백제국사(百濟國使)란 항목에는 백제 사신의 모습과 함께 그 나라를 소개하는 짚막한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런데 백제에 의지하는 국가로서 모두 9개의 소국들이 나열되어 있다. 그 가운데 상기문(上己文)이란 가야국이 보이는데,<sup>44)</sup> 이 상기문이 바로 삼기문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하며 6세기 초반에 이미 백제에 부속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45)</sup>

다음으로 반파 역시 전북 동부지역에 존재하던 가야 세력이었다. 반파국의 존재는 『梁職貢圖』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백제의 방소국으로서 기문과 함께 반파(叛波)가 기술되어 있다. 이 반파는 『일본서기』에 자주 등장하는 반파(伴跛)와 동일한 나라로 파악된다.

사료상에서 이 반파국은 513년에 기문의 땅을 놓고 백제와 대립하는 모습을

38) 김재홍, 2012, 앞의 논문, 119~120쪽.

39) 彭久松·金在善 編著, 1996, 『原文 東夷傳』, 서문문화사, 90쪽.

40) 김세기, 2019, 「고고학으로 본 가야의 개념과 영역」, 『한국고대사연구』 94, 한국고대사학회, 24쪽.

41) 천관우, 1991, 『가야사연구』, 일조각, 38~39쪽; 권주현, 2011, 「『三國史記』에 보이는 4~5세기의 加耶와 三國과의 관계」, 『신라문화』 3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71~78쪽.

42) 김재홍, 2012, 앞의 논문, 119쪽; 최완규, 2018, 「전북지역의 가야와 백제의 역동적 교류」, 『호남고고학보』 59, 10~12쪽.

43) 『續日本後紀』卷6, 仁明天皇 承化 4年 夏6月條, “... 始祖鹽乘津 大倭人也 後順國命往居三己汶地 其地遂隸百濟”

44) “旁小國有叛波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己文下枕羅等附之”

45) 송영근, 2020, 앞의 논문, 23쪽.

보인다.<sup>46)</sup> 또한 514년에는 자탄과 대사에 성을 쌓고 봉후(봉화)를 설치하여 일본에 대비하거나 신라와도 분쟁을 일으키곤 하였다.<sup>47)</sup> 이 반파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가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였다.<sup>48)</sup> 이는 그동안 장수군과 같은 전북 동부지역에서 이뤄진 고고학적 연구성과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장수군에서 가야 관련 유물이나 유적들이 꾸준히 발견되고 연구되면서 이 지역 가야세력을 반파국으로 보는 시각이 등장하기도 하였다.<sup>49)</sup>

그런데 백제토기는 6세기 초엽으로 편년되는 병형토기가 남원 건지리에서 출토되었다. 그리고 신라토기는 6세기 중엽 대가야 멸망 이후로 편년되는 유개단각고배<sup>50)</sup>가 남원 봉대 고분군에서 출토되었다. 이들 출토유물에 대해서는 남원 운봉고원 지역이 신라에 복속되었음을 의미하는 자료로 해석하고 있다.<sup>51)</sup>

백제는 5세기대 이후 신라와 고구려가 공방전을 벌이는 동안 전북 동부지역으로 진출하였다.<sup>52)</sup> 백제의 진출 배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섬진강이라는 새로운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한 동성왕대 백제가 이미 대외교통로인 금강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한 대중국외교가 자주 이루어졌던 사실 등을 들어 대외교통로 확보보다는 한강유역 상실로 인한 농경지 부족과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섬진강 유역을 통한 전북지역으로의 진출한 것이란 현실적인 해석이 등장하였다.<sup>53)</sup>

필자 역시 이러한 추론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이다. 즉, 『신찬성씨록』에는 ‘가야 동북지역에 삼기문의 땅이 있는데 지방은 300리이며 토지는 비옥하고 인민이 많다’고 한 기사가 보인다.<sup>54)</sup> 여기에서 가야 동북지역은 전북 동

46) 『日本書紀』卷17, 繼體 7年條. “別奏云 伴跋國略奪臣國已汶之地 伏請 天恩判還本屬”

47) 『日本書紀』卷17, 繼體 8年條. “三月 伴跋築城於子吞帶沙 而連滿奚 置烽候邸閣 以備日本 得築城於爾列比 麻須比 而緝麻且奚推封 聚士卒兵器以逼新羅 駝略子女剝掠村邑 凶勢所加 罕有遺類 夫暴虐奢侈 惱害侵凌 誅殺尤多 不可詳載”

48) 강인구 편, 2001, 「대가야의 盛衰와 신라」, 『三國時代研究 I』, 학연문화사.

49) 곽장근, 2020(f), 「삼국시대 가야 봉화망과 반파국 비정」, 『전북학연구』 2, 전북연구원, 15~21쪽; 이도학, 2020, 「가야사 연구의 쟁점과 반파국」, 『전북학연구』 2, 전북연구원, 53~60쪽.

50) 뚜껑과 고배가 한 쌍으로 이루어진 유물인데 뚜껑 윗부분에 둥그렇게 말아놓은 형태의 굽형꼭지가 있다.

51) 전상학, 2018, 앞의 논문, 57쪽.

52) 5세기 및 6세기초의 국제상황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강인구 편, 2001, 앞의 책, 125~133쪽.

53) 송영근, 2020, 앞의 논문, 11~13쪽.

54) 『新撰姓氏錄』左京皇別 下 吉田連條, “御間城入彦天皇御代 任那國奏曰 臣國東北有三

부지역을 가리키며 그곳에 있는 삼기문은 비옥한 토지와 터전을 형성하며 살아 가는 사람들이 많은 풍요로운 고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백제는 5세기 중후반 이후부터 고구려의 한성 침략으로 개로왕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 문주왕이 왕위에 오른 이후 수도를 한반도 남부의 웅진으로 옮겨 국가의 위기를 넘기려 하였다. 그러나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웅진시대의 첫 왕인 문주왕은 물론 삼근왕 등 백제왕들의 연이은 죽음으로 인해 백제의 국내정세가 불안해진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여기에 동성왕이 즉위한 뒤에도 말갈이나 고구려 등 외부세력과의 공방(攻防)과 기근(饑饉)으로 인한 백성들의 유망(流亡)이 속출하자<sup>55)</sup> 이러한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성왕은 전북 동부지역의 인구 및 농업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적극 진출하게 되었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동성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무령왕은 백제의 중흥을 이끈 성군이었다. 6세기 초반 무령왕은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반란을 일으킨 백가(昔加) 일당을 토벌하여 왕권에 도전한 세력을 강력히 처단하며 왕권의 안정화에 힘을 기울였다.<sup>56)</sup> 또한 그는 재위 기간동안 직접 전투를 지휘하며 고구려의 침략은 물론 말갈과의 충돌에서 수차례 승리를 이끌었다.

아울러 그는 양나라에 사신을 파견하는 등 대외교섭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리하여 무령왕은 양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이에 앞서 백제가 고구려에게 패배를 당하여 여러 해에 걸쳐 쇠약해졌는데 지금에 이르러 고구려를 여러 차례 격파하면서 다시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던 것이다.<sup>57)</sup> 이와 더불어 그는 비록 당시에도 백제인들의 삶이 계속된 기근과 역병, 잦은 전쟁 등으로 인해 고달팠으나 제방(隄防)을 쌓게 한다거나 국내외의 유식자(游食者)를 찾아서 귀농시키는 등 백성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힘쓰기도 하였다.<sup>58)</sup> 이같은 국내외의 정세 속에서 무령왕 역시 당시 수도 웅진과 비교적 가까운 전북 동부지역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것이다. 그런데 주지하듯이 『삼국사기』 등 현재까지 전해지는 국내의 문헌자료에는 무령왕대 백제의 가야지역 진출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전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의 고대 사서인 『일본서기』(계체기)에는 백제 및 가야(임나)와 관련하여 무령왕대 백제와 주변국

己汶地(上己汶 中己汶 下己汶) 地方三百里 土地人民富饒 …”

55)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文周王·三斤王·東城王條

56)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武寧王 卽位年條, “春正月 佐平昔加據加林城叛 王率兵馬至牛頭城 命扞率解明討之 昔加出降 王斬之 投於白江”

57)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武寧王 21年條

58)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武寧王 2年·6年·10年條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이 전해지고 있어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유추해볼 수 있다.<sup>59)</sup>

지금까지 나온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최근 6세기 초반 백제와 전북 동부지역 세력간 교류를 엿볼 수 있는 백제의 유물들이 상당수 출토되었다. 즉, 전북 동부지역 가야고분 존재집단 가운데 장수지역 삼고리고분군과 동촌리고분군 등에서는 백제의 위세품인 삼족기와 병형토기를 비롯한 유물들이 발견된 것이다. 이를 통해 전북 장수지역이 백제와의 교류 루트 중의 하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sup>60)</sup>

이러한 전북 동부지역에서의 백제유물 수의 증가는 교역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적어도 백제의 가야세력에 대한 복속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백제가 전북 동부지역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6세기 초반 이른 시기에 전북 운봉고원 일대의 가야 무덤에서 기존의 수혈식이 백제의 무덤과 같은 횡구식 및 횡혈식으로 바뀐 점,<sup>61)</sup> 그리고 『양직공도』 백제국사조에서 백제가 무령왕 21년(521)에 사신을 파견하여 주변 소국을 언급하는 가운데 ‘의지한다’는 의미의 ‘부(附)’라고 하는 글자를 사용한 점 등에서 알 수 있다.<sup>62)</sup>

물론 여기에서 ‘부’란 용어가 주관적이면서 과장된 표현일 수 있으나 누차 고구려를 물리친 무령왕대 백제의 정세를 고려하면 당시 자신감 넘치던 백제의 입장에 볼 때 실제로 그렇게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무령왕의 아들 성왕 역시 재위 기간 초반부터 가야지역으로 군대를 보내 성을 쌓는 등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일본서기』 계체기에 백제가 531년(성왕 9년)에 안라에 군대를 보내 결탁성을 쌓았다고 하는 다음과 같은 간략한 기사 내용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가. “... 여기서 25년 이 해의 간지 신해에 죽었다고 한 것은 『백제본기』를 취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 기록에서는 ‘이 해의 간지 신해 3월, (백제)군사가 안라로 나아가 결탁성(乞吒城)을 쌓았다. ...’ 고 하였다.”<sup>63)</sup>

59) 6세기대 백제의 가야진출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장미애, 2020, 앞의 논문.

60) 문송식, 2021, 앞의 논문, 83~105쪽.

61) 곽장근, 2017(d), 앞의 논문, 39쪽.

62) 『梁職貢圖』百濟國使, “普通二年(521) 其王餘隆遣使奉表云 累破高麗 所治城曰固麻 謂邑曰 檐魯 如中國郡縣 有二十二檐魯 分子弟宗族爲之 旁小國有叛波·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己文·下枕羅等附之 ...”

63) 『日本書紀』卷17, 繼體天皇 25年 春2月條

그런데 위 기사에 나오는 곁탁성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다만 학계에서는 이 곁탁성을 『삼국사기』(卷34, 地理1 康州) 거창군(居昌郡)조에 기록된 ‘본래 거창군(居烈郡) 혹은 거타(居陁)라고 한다’는 내용에 주목하여 거타와 연결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거타’는 신라의 거창군으로서 현재까지 경상남도 거창군으로 불리며 그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다.

거창은 전북 장수나 경남 함안, 진주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곁탁성을 진주 혹은 함안지역으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백제가 직접 군대를 보내 안라에 성을 쌓았다는 사실은 백제가 가야지역을 직접 관리하거나 영유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64)</sup> 이같은 백제의 움직임에 안라를 비롯한 주변 가야 소국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고 그 대책으로써 가야 제국은 신라와의 교섭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 3. 6세기대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세력과 신라의 진출

먼저, 6세기대 신라와 가야의 교류 양상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단편적으로 엿볼 수 있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나. “소지마립간 18년(496) 봄 2월에 가야국이 꼬리 길이가 5척인 흰 꿩을 보내다.”<sup>65)</sup>
- ㄴ. “법흥왕 9년(522) 3월에 가야국왕이 사신을 보내 청혼하니 왕이 이찬(伊飡) 비조부(比助夫)의 누이를 보내다.”<sup>66)</sup>
- ㄷ. “법흥왕 11년(524) 9월에 왕이 남쪽의 개척한 지역을 순행하니 가야국왕이 와서 만나다.”<sup>67)</sup>
- ㄹ. “법흥왕 19년(532) 금관국주 김구해와 왕비 및 3명의 아들, 첫째 노중, 둘째 무덕, 셋째 무력과 함께 나라의 창고에 있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하였다.”<sup>68)</sup>

64) 장미애, 2020, 앞의 논문, 80쪽.

65)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炤知麻立于 18年 春 2月條

66)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法興王 9年 3月條

67)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法興王 11年 9月條

68)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法興王 19年條

口. “진흥왕 23년(562) 9월에 가야가 배반하였다. 왕이 이사부에게 명하여 토벌케하고 사다함에게 그를 보좌토록 하였다. (하략)”<sup>69)</sup>

다. “신라가 임나관가(任那官家)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어떤 책에서는 21년에 임나가 멸망하였다고 한다. 통틀어 말하면 임나이로 개별적으로 말하면 가라국(加羅國)·안라국(安羅國)·사이기국(斯二岐國)·다라국(多羅國)·졸마국(卒麻國)·고차국(古嵯國)·자타국(子他國)·산반하국(散半下國)·결손국(乞漚國)·임예국(稔禮國) 등 모두 열 나라이다.”<sup>70)</sup>

위 사료 나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와 가야의 관계는 496년에 가야가 신라에게 흰 평을 선물로 보내줬다는 내용, 522년에 가야가 신라에게 혼인을 요청하고 결혼을 성사시킨 일, 524년에 법흥왕이 남쪽 지역을 순행하면서 가야국왕과 조우한 사실, 진흥왕대 금관가야가 신라에 항복한 사건 및 반란을 일으킨 가야를 토벌한 기사 등에서 어느 정도 간취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사료에서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중반까지 신라와 교류한 가야의 정치체로 각각 가야국과 금관국이 등장한다. 이 중 확실하게 국명을 밝힌 금관국을 제외하면 신라와 교류한 정치체는 가야국으로 기술되어 있다.

학계에서는 이 가야국을 대체로 대가야(김태식·전덕재·이문기 등)로 판단하고 있다.<sup>71)</sup> 사료 나·ㄷ의 경우에는 특히 금관가야를 가리킨다는 견해(주보돈·백승충·이영식 등)도 있다.<sup>72)</sup> 필자 역시 금관국 외의 가야국은 대가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사료상에 의한다면, 신라가 가야 여러 나라와 교류 또는 접촉한 시기는 적어도 6세기 이전시기부터라고 볼 수 있다.<sup>73)</sup> 즉, 위 사료 나·ㄱ에 의하면 대가야는 5세기 후반경 신라왕실에 진귀한 선물을 보냈던 것이다. 이는 그

69)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眞興王 23年條

70)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23年(562) 春正月條

71) 金泰植, 1993, 앞의 책; 이문기, 1995, 「대가야의 외교관계」, 『가야사연구-대가야의 정치와 문화』, 경상북도; 전덕재, 2018, 「가야지역을 둘러싼 신라와 백제의 대립」, 『신라와 백제, 소통과 갈등』, 충청남도역사문화원·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72) 朱甫暎, 1982, 「加耶滅亡問題에 대한 一考察-新羅의 膨脹과 關聯하여-」, 『慶北史學』 4, 경북사학회; 이영식, 1994, 「신라와 가야제국의 전쟁과 외교」,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1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白承忠, 1996, 「加羅·新羅 '결혼동맹'의 결렬과 그 추이」, 『釜大史學』 20, 부산대 사학회.

73) 최근 마구류를 통해 이미 4세기대부터 신라와 가야의 교류가 이뤄지고 있었음을 언급한 연구성과도 있다.(류창환, 2020, 「마구로 본 가야와 신라의 교류」, 『경남학연구』 2, 경남연구원.)

이전부터 신라와의 교류 관계가 간헐적으로나마 형성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6세기에 들어와서도 대가야는 신라 왕실에 청혼을 한다거나 법흥왕이 순행할 때 와서 만나는 등 신라와의 우호관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가야왕이 법흥왕을 만난 사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즉, 가야국을 금관가야로 보는 입장에서는 법흥왕이 영역화한 지역을 순행하자 금관가야왕이 찾아와서 항복의사를 밝힌 것이란 견해, 금관국(남가라)왕이 탁기탄 등 북부지역을 개척한 법흥왕의 순행에 동조해 만났다는 견해, 신라가 낙동강 하류의 양산 물금 방면을 새로 개척하고 남부지역을 순행하자 금관가야왕이 법흥왕을 만났다는 견해 등이 있다.

반면 가야국을 대가야로 보는 입장에서는 탁기탄 주변의 경계를 대가야와 확정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났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대가야왕이 신라와의 친선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만났다는 견해, 신라 남쪽의 영역과 이해관계가 직접 얽혀 있지 않은 대가야왕이 법흥왕을 찾아와서 만났다는 견해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금관가야는 법흥왕 19년인 532년에 곧 신라에게 멸망당하였고, 대가야는 진흥왕 23년(562)에 멸망하였다.<sup>74)</sup> 사료 내에 의하면, 『일본서기』 흠명기 기사 속에도 562년경 신라가 가라국과 안라국을 비롯한 가야 10개국을 모두 멸망시킨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학계에서는 이 가야 제국 멸망 기사를 대체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신라에 의한 가야 병합이 대가야의 멸망을 전후하여 최종 투항 상태를 전하는 것일 뿐 일시에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sup>75)</sup> 그리고 이들 가야 10개국에 대한 지명비정에 있어서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의견을 달리하는데 대체로 가라국을 대가야인 고령에, 안라국을 함안에, 사이기국을 의령 부림에, 다라국을 합천에, 졸마국을 김천 조마면 일대 또는 함양에, 고차국을 고성에, 자타(탄)국을 거창 또는 진주에, 산반하(해)국을 합천에, 걸손국을 산청에, 임예국을 의령<sup>76)</sup>에, 탁순국을 창원에, 탁기탄국을 창녕에, 남가라국을 김해에 각

74) 가야의 멸망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앞선 연구가 참고된다. 김태식, 1992, 『6세기 중엽 가야의 멸망에 대한 연구』, 『한국고대사논총』 4,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75) 김태식, 1997, 『한국사-7-삼국의 정치와 사회 III - 신라가야』, 국사편찬위원회, 368쪽.

76) 의령의 예둔리고분과 중동리고분 발굴조사와 지표조사를 통해 4~5세기대를 중심으로 한 시기에는 아라가야권에 포함되고 있었으나 5세기 후반 이후부터는 세력권에 따른 분화가 나타나 함안과 인접한 지역은 아라가야권에 속했으나 동북지역은 고령의 대가야권으로, 서부지역은 진주권가야세력의 영향권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세기 이후에는 신라문화의 파급과 교류가 일어나고 있음도 죽전리산성고분의 채집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파악된다.(박승규, 1994, 『의령의 선사 가야유적』, 의령문화원·경



각 비정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모두 경상남·북도에 위치하면서 지리산 자락을 마주한 낙동강 서안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가야 10개국 가운데 졸마국과 마찬가지로 임예국 역시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가 불확실하다. 특히 임예국은 『일본서기』에 따르면 신라에 의해 토벌된 가야 소국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된 나라이면서 결손국 산청과 비교적 가깝고 장수 등 전북 동부지역과도 근거리에 위치한다.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어 임예국의 위치를 추정해 본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함양(咸陽)을 들 수 있다.

『일본서기』의 기술순서대로 보면 졸마국은 함양이 아닌 김천에, 임예국은 의령이 아닌 함양에 각각 비정하는 것이 좀더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함양은 동쪽으로 거창과 산청, 서쪽으로 전북 남원과 장수, 남쪽으로 하동, 북쪽으로 거창군과 접해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함양은 본래 속함군(速含郡)이었다.

이 속함군은 신라 경덕왕대에 천령군(天嶺郡)으로 개명되었고 고려시대에는 함양군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영현(領縣)으로 운봉현(雲峯縣)<sup>77)</sup>이 있는데 본래 모산현(母山縣)(혹은 阿英城 또는 阿莫城)으로 역시 경덕왕대에 개명되었다고 한다.<sup>78)</sup> 따라서 사료상으로는 함양의 본래 지명이 속함군이었다고 하는데 속함군은 가야 소국에서 사용한 원래의 군명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함양은 신라에 의해 멸망당한 뒤 임예국에서 속함군과 천령군으로 각각 바뀌고 고려시대에 이르러 다시 개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임예국과 속함군의 지명 연관성은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알아낼 수 없다. 그런데 함양의 백천리 고분군에서는 토기류·철기류·장신구류 등 2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곳에서 5·6세기경 가야문화권에 속하는 정치집단이 자리하고 있었던 단서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 유적은 함양군내에 산재한 고분군들 중에서 가장 중심지에 자리잡은 고분군으로, 두 하천이 합류하는 함양분지의 중앙 평야지대로 뻗은 낮은 구릉상에 입지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 여러 차례 도굴되어 많이 훼손된 유적인데 1980년도 부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 구제발굴된 바 있다.

상대학교박물관, 116쪽.)

77) 지금의 전북 남원시 운봉읍이다.(정구복 외, 1997,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학중앙연구원, 223쪽.)

78) 『三國史記』 卷34, 雜志3, 地理1, 康州 天嶺郡條

이에 의하면, 직경 10~30m되는 중대형 봉토분이 20여 기 산재해 있는데 1~5호분까지 5기의 봉토분과 주변 소형분이 발굴되었다. 발굴조사된 봉토분의 매장시설은 둥글둥글한 냇돌(川石)을 이용하여 축조된 구덩식돌덧널(竪穴式石槨)이다. 각 봉토분은 보통 대형과 중형의 돌덧널(石槨) 2개를 나란히 배치하거나 하나의 대형돌덧널에 1~2개의 소형돌덧널을 둘러놓은 여러덧널식(多槨式)고분이며, 봉토분이 아닌 경우는 외덧널식(單槨式)이 일반적이다. 봉토의 외곽에서 무덤도랑(周溝)이나 돌래돌(護石) 등 묘역 외곽시설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발굴보고된 1호분은 봉분의 직경이 13m, 높이 2m 정도이고 하나의 대형 돌덧널 1개에 2개의 소형 돌덧널이 딸린 여러덧널식이다. 대형 돌덧널인 1-3호 돌덧널은 길이, 너비가 7.4×1.2m로 매우 세장(細長)한 형태이다. 깊이 1.7m 정도의 무덤구덩이(墓壙)를 파고 높이 1.75m 가량 되도록 냇돌을 이용하여 돌덧널을 축조한 뒤 12매의 대형 깎돌(割石)로 돌뚜껑을 한 반지하식에 속한다.

돌덧널 내부의 바닥에서는 좌우 나란히 2개씩 5열의 기둥구멍이 발견되었고 대형 꺾쇠가 출토되어 나무덧널(木槨)과 같은 시설물을 돌덧널 안에 짜 넣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돌덧널 양 끝에는 토기를 주로 부장하였고 피장자 머리맡에서는 화살통장식과 마구류가 발견되었다. 피장자는 외좌의 금귀고리를 끼고 민고리자루큰칼 2자루를 차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상원하방(上圓下方)의 민고리자루(素環頭)를 가지고 있고 자루는 철지은장(鐵地銀裝)에 물고기비늘무늬(魚鱗文)로 장식했다.

토기는 5세기말에서 6세기초에 속하는 이른바 고령계토기양식이며 대가야 계통의 무덤에서 발견되는 기종구성과 토기양식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함양지역은 고령에서 거창을 거쳐 남원지역으로 통하는 통로와 산청과 진주로 통하는 통로가 만나는 내륙교통의 요지이다. 이 백천리고분군의 양상으로 보아 5세기경 대가야 세력이 성장하며 그 영향력을 주변지역으로 확대하면서 함양지역에도 대가야의 문화가 반영된 게 아닌가 한다.<sup>79)</sup>

이 백천리고분군을 통해 함양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지역과 고령 등지의 가야문화가 동일문화권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가까운 함양읍내와 생초면 등에도 파괴된 고분을 비롯해 많은 무덤이 산재해 있는데 1972년에 동아대학교에서 발굴한 상백리고분군(上柏里古墳群)에서는 다양한 토기류와 무기류가 출토된 점에서 이 지역에 고분군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80)</sup> 이와

79)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함양 백천리 고분』, 『한국고고학사건』.

80) 김동호, 1972, 『함양상백리 고분군 발굴조사보고』, 동아대학교박물관.

같이 함양 일대에 다수의 고분이 분포한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문헌에 나타나지 않고 언급되지 않은 가야 소국이 이곳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해주는 것이다.<sup>81)</sup>

최근 전북 남원 운봉지역의 두락리 고분군에서는 5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사형상철기<sup>82)</sup>가 발견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유물과 같은 형태가 함천, 함양, 경주, 양산 등 대가야와 신라 지역에서 출토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sup>83)</sup> 이들 지역과의 교류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더구나 두락리 1호분 출토의 6세기 초반으로 편년되는 복환관비(재갈)라고 하는 유물 역시 신라 철기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sup>84)</sup> 두락리 2호분에서는 6세기 중반으로 편년되는 신라 양식의 단각 유개고배편이 출토되었다.<sup>85)</sup>

따라서 신라는 5세기 후반 이후부터 이미 대가야 및 금관가야 등 가야 여러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그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도 강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구려 및 백제의 동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즉, 6세기 초반 당시 고구려의 안장왕이 백제의 북쪽지역인 강화도를 공격하여 빼앗자 이를 막으려 대규모 군사를 보내기도 했으나 패하는 일이 있었다.<sup>86)</sup>

이처럼 백제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고구려의 남하에 정치·군사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백제의 성왕은 즉위하자마자 신라에 사신을 보내거나 고구려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자 신라에게 청병을 요청하는 등 신라와는 되도록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또한 그는 가야지역으로 백제의 군대를 파견하여 성을 쌓게 하는 일까지 추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는 가야지역에 대한 신라의 진출에 대해서 외교책을 통해 관리하려 했을 것이다.<sup>87)</sup> 반면 신라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에 걸쳐

81) 신경철, 1981, 『함양백천리고분발굴조사개요(咸陽白川里古墳發掘調査概要)』, 『한국고고학연보(韓國考古學年報)』 8, 서울대학교 박물관.

82) 그 형태가 뱀이 지나가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83) 유영춘, 앞의 논문, 2018, 69~70쪽.

84) 유영춘, 앞의 논문, 2015, 108~113쪽; 위의 논문, 2018, 82~83쪽.

85) 광장근, 2004(a), 『호남 동부지역의 가야세력과 그 성장과정』, 『호남고고학보』 20, 호남고고학회, 116쪽.

86)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聖王 7年(529) 冬10月條

87) 『日本書紀』 卷19, 欽明紀 2年 秋7月條에는 신라가 감언으로 속인다가나 신라와 접한 가야의 경계에 대해 항상 방비를 해야한다고 하는 백제의 주장이 실려 있다. 이에 대해 백제로서는 가야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신라의 유화적 몸짓에 대해 항상 경계의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라는 것이고 동시에 신라와의 불필요한 충돌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며 가야와 신라의 접경지역이 백제로서는 일종의 세력 완충지대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김현구 외 3인 공저, 2003, 앞의 책, 136쪽.)

전북 동부지역 가야세력과의 접촉이나 교역을 통해 백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신라는 가야를 둘러싼 당시 주변국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가야 남부지역에 진출하는 대외정책을 펼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sup>88)</sup>

그런데 신라에 의한 전북 동부지역으로의 진출 루트는 운봉고원에서 진안고원으로 넘어가는 방향이었다. 그리고 전북 동부로의 신라의 진출은 한 갈래보다 운봉고원, 전북 무주군 등 두 갈래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 무주군은 경주에서 성주, 김천을 경유하여 백두대간 덕산재를 넘는 루트로 운봉고원보다 앞서는 5세기 말엽 경으로 밝혀졌는데, 그것은 무주 대차리 고분군 발굴 조사를 통해 유적과 유물로 검증되었다.<sup>89)</sup>

신라는 최소한 전북 동부지역 및 지리산과 비교적 가까운 지역의 가야세력에 대해서는 교역과 인적 교류 등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전북 동부지역의 남원 월산리나 두락리 일대는 내륙교통로로서 신라가 가야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핵심요충지이며 철의 생산지가 분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였다.<sup>90)</sup> 이곳에서 신라 관련 유물이 발견된 것뿐만 아니라 전북 무주에서도 6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되는 신라 유물이 발견된 것이다.<sup>91)</sup>

#### 4. 맺음말

이상으로 6세기 전후 전북 동부지역 가야세력과 신라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해 보았다. 본문에서는 가야권역에 해당되며 신라·백제·가야 등 삼국의 각축장이면서 신라의 유물이 확인되는 전북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6세기 전후 전북지역의 정세 및 가야세력과 신라의 외교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6세기 전후 전북 동부지역의 정세와 6세기대 전북 동부지역 가야세력과 신라의 진출이란 소주제로 논의를 진행시켜 보았다.

먼저, 6세기 전후 전북 동부지역의 정세는 다음과 같다. 전북 동부지역은 크게 진안고원과 운봉고원(아영분지)으로 구분한다. 전자에는 장수·진안·무주·가,

88) 이연심, 2020, 『6세기 전반 신라와 가야의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99, 한국고대사학회, 33~58쪽.

89) 연합뉴스, <무주서 신라 서진(西進) 보여주는 무덤 9기 발견>, 2018. 11. 27일자, 곽장근, 2022(g), 『무주봉화로, 신라를 감시했다』, 『전북문화살롱』 통권39.

90) 곽장근, 2004(a), 위의 논문, 117쪽.

91) 전상학, 2013, 위의 논문, 37~38쪽.

후자에는 남원이 각각 해당된다.

고고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진안고원의 장수지역 고분군 뿐 아니라 운봉고원의 남원지역 두라리와 월산리 고분군 등을 중심으로 전북지역 가야세력을 연구해 왔다. 그리하여 5세기 전반에서 6세기 전반에 이르는 오랜 기간동안 고총(高塚)이 밀집분포하고 있는 장수권(장계·장수분지)과 주변지역에는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세력이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6세기 초반 전북 동부지역에는 기문(己汶·己文)으로 알려진 가야계 정치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기문은 상·중·하의 삼기문(三己汶)을 총칭하며 여러 역사서에서 백제와 갈등을 벌이는 전북 동부지역 가야세력으로 등장한다. 이들 삼기문 가운데 상기문(上己汶)은 남원시 운봉읍, 하기문(下己汶)은 장수지역 등으로 각각 추정되고 있으며 중기문은 삼기문 가운데 하나로 명칭만 전할 뿐 존재 자체가 의문일 정도로 미미하다.

백제는 5세기 중후반 이후부터 고구려의 한성 침략으로 개로왕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 문주왕이 왕위에 오른 이후 수도를 한반도 남부의 웅진으로 옮겨 국가의 위기를 넘기려 하였다. 그러나 백제왕들의 연이은 죽음으로 인해 백제의 국내정세가 불안해진 상황 속에서 즉위한 동성왕은 말갈이나 고구려 등 외부세력과의 공방(攻防)과 기근(饑饉)으로 인한 백성들의 유망(流亡)이 속출하자 이러한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북 동부지역의 인구 및 농업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진출하게 되었을 것이다. 무령왕 역시 521년 양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백제에 의지하는 주변의 9개 소국을 언급하는 가운데 상기문(上己文)이란 전북지역 가야국을 내세우는데 이때 ‘의지한다’는 의미의 ‘부(附)’라고 하는 글자를 사용한 점에서 당시 수도 웅진과 비교적 가까운 전북 동부지역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것이다.

무령왕의 아들 성왕 역시 재위 기간 초반부터 가야지역으로 군대를 보내 성을 쌓는 등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일본서기』 계체기에 백제가 531년(성왕 9년)에 안라에 군대를 보내 결탁성을 쌓았다고 하는 기사에서 엿볼 수 있는데 결탁성은 진주 혹은 함안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백제가 직접 군대를 보내 안라에 성을 쌓았다는 것은 가야지역을 직접 관리하거나 영유하겠다는 백제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백제의 움직임에 안라를 비롯한 주변 가야 소국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고 그 대책으로써 가야 제국은 신라와의 교섭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최근 6세기 초반 백제와 전북 동부지역 세력간 교류를 엿볼 수 있는 백제의 유물들이 상당수 출토되었다. 전북 동

부지역 가야고분 존재집단 가운데 장수지역 삼고리고분군과 동춘리고분군 등에서는 백제의 위세품인 삼죽기와 병형토기를 비롯한 유물들이 발견된 것이다. 이러한 전북 동부지역에서의 백제유물 수의 증가는 교역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적어도 백제의 가야세력에 대한 복속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백제는 전북 동부지역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6세기대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세력과 신라의 진출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금관가야는 법흥왕 19년인 532년에 곧 신라에게 멸망당하였고 대가야는 진흥왕 23년(562)에 멸망하였다. 『일본서기』 흠명기 기사 속에도 562년경 신라가 가라국과 안라국을 비롯한 가야 10개국을 모두 멸망시킨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학계에서는 이 가야 제국 멸망 기사를 대체로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신라에 의한 가야 병합이 대가야의 멸망을 전후하여 최종 투항 상태를 전하는 것일 뿐 일시에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가야 10개국 가운데 줄마국과 마찬가지로 임예국 역시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가 불확실하다.

특히 임예국은 『일본서기』에 따르면 신라에 의해 토벌된 가야 소국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된 나라이면서 결손국 산청과 비교적 가깝고 장수 등 전북 동부지역과도 근거리에 위치한다. 명확한 증거자료는 없지만 임예국의 위치를 추정해 본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함양(咸陽)을 들 수 있다. 함양은 동쪽으로 거창과 산청, 서쪽으로 전북 남원과 장수, 남쪽으로 하동, 북쪽으로 거장군과 접해 있다. 『일본서기』의 기술순서대로 보면 줄마국은 함양이 아닌 김천에, 임예국은 의령이 아닌 함양에 각각 비정하는 것이 좀더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최근 전북 남원 운봉지역의 두락리 고분군에서는 5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사형상철기가 발견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유물과 같은 형태가 합천, 함양, 경주, 양산 등 대가야와 신라 지역에서 출토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들 지역과의 교류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더구나 두락리 1호분 출토의 6세기 초반으로 편년되는 복환판비(재갈)라고 하는 유물 역시 신라 철기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두락리 2호분에서는 6세기 중반으로 편년되는 신라 양식의 단각 유개고배편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신라는 5세기 후반 이후부터 이미 대가야 및 금관가야 등 가야 여러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그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도 강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구려 및 백제의 동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즉, 백제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고구려의 남하에 정치·군사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백제의 성왕은 즉위하자마자 신라에 사신을 보내거나 고구려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자 신라에게 청병을 요청하는 등 신라와는 되도록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또한 그는 가야지역으로 백제의 군대를 파견하여 성을 쌓게 하는 일까지 추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는 가야지역에 대한 신라의 진출에 대해서 외교책을 통해 관리하려 했을 것이다.

반면 신라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에 걸쳐 전북 동부지역 가야세력과 접촉이나 교역을 통해 백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신라는 가야를 둘러싼 당시 주변국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가야 남부지역에 진출하는 대외정책을 펼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신라에 의한 전북 동부지역으로의 진출 루트는 운봉고원에서 진안고원으로 넘어가는 방향이었고 전북 동부지역의 남원 월산리나 두락리 일대는 내륙교통로로서 신라가 가야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핵심요충지이며 철의 생산지가 분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이곳에서 신라 관련 유물이 발견된 것뿐만 아니라 전북 무주에서도 6세기 초 이후로 편년되는 신라의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 참고문헌

### <사료>

『三國史記』·『日本書紀』·『續日本後紀』·『新撰姓氏錄』·『梁職貢圖』·『南齊書』

### <논문 및 보고서>

#### 1) 국내

- 곽장근, 2004, 「호남 동부지역의 가야세력과 그 성장과정」, 『호남고고학보』 20권, 91-124쪽.
- 곽장근, 2010, 「전북 동부지역 가야와 백제의 역학관계」, 『백제문화』 43권, 29-60쪽.
- 곽장근, 2011, 「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63권, 81-114쪽.
- 곽장근, 2017, 「호남 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 현황」, 『경남발전』 138권, 34-57쪽.
- 곽장근, 2018, 「전북의 가야문화유산 현황과 과제」, 『가야역사문화권 연구 조사 및 정비와 국가균형발전』, 전북연구원.
- 곽장근, 2020, 「삼국시대 가야 봉화망과 반과국 비정」, 『전북학연구』 2권, 1-34쪽.
- 곽장근, 2022, 「무주봉화로, 신라를 감시했다」, 『전북문화살롱』 39권.
- 권주현, 2011, 「『三國史記』에 보이는 4~5세기의 加耶와 三國과의 관계」, 『신라문화』 38권, 53-84쪽.
- 김동호, 1972, 『함양상백리 고분군 발굴조사보고』, 동아대학교박물관.
- 김세기, 2019, 「고고학으로 본 가야의 개념과 영역」, 『한국고대사연구』 94권, 5-47쪽.
- 김재홍, 2012, 「전북 동부지역 백제, 가야, 신라의 지역지배」, 『한국상고사학보』 78권, 113-134쪽.
- 김태식, 1992, 「6세기 중엽 가야의 멸망에 대한 연구」, 『한국고대사논총』 4권.
- 류창환, 2020, 「마구로 본 가야와 신라의 교류」, 『경남학연구』 2권, 155-180쪽.
- 문송식, 2021,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 고분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 박승규, 1994, 『의령의 선사 가야유적』, 의령문화원·경상대학교박물관.



- 白承忠, 1996, 「加羅·新羅 '결혼동맹'의 결렬과 그 추이」, 『釜大史學』 20권, 1-33쪽.
- 송영근, 2020, 「5~6세기 전라 동부지역의 가야제국과 백제의 진출」,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역사고고학과.
- 신경철, 1981, 「함양백천리고분발굴조사개요(咸陽白川里古墳發掘調查概要)」, 『한국고고학연보(韓國考古學年報)』 8권.
- 오동선, 2020, 「남원 아영분지 고총고분 조영세력의 변천과 성격」,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과 월산리고분군 조사성과와 의의』,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남원시.
- 유영춘, 2015, 「운봉고원 출토 마구의 의미와 등장배경」, 『호남고고학보』 51권, 86-120쪽.
- 유영춘, 2018, 「철기유물로 본 전북지역 가야의 교류」, 『호남고고학보』 59권, 64-88쪽.
- 이도학, 2020, 「가야사 연구의 쟁점과 반파국」, 『전북학연구』 2권, 35-75쪽.
- 이문기, 1995, 「대가야의 외교관계」, 『가야사연구-대가야의 정치와 문화-』, 경상북도.
- 이연심, 2020, 「6세기 전반 신라와 가야의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99권, 33-58쪽.
- 이영식, 1994, 「신라와 가야제국의 전쟁과 외교」,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15권, 99-135쪽.
- 장미애, 2020, 「6세기 백제의 가야진출에 대하여」, 『한국고대사연구』 97권, 49-85쪽.
- 전덕재, 2018, 「가야지역을 둘러싼 신라와 백제의 대립」, 『신라와 백제, 소통과 갈등』, 충청남도역사문화원·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전상학, 2011, 「장수가야의 지역성과 교류관계」, 『제39회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의 각축장 금강상류지역 주제발표』 4권.
- 전상학, 2013, 「진안고원의 지역성」, 『호남고고학보』 43권, 35-66쪽.
- 전상학, 2018, 「전북지역 가야고분의 현황과 특징」, 『호남고고학보』 59권, 46-63쪽.
- 전상학, 2020, 「고고자료와 문헌으로 본 상기문국」, 『전북학연구』 2권, 77-107쪽.
- 조성희, 2020, 「3~7세기 전북지역 취락의 고고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 朱甫暎, 1982, 「加耶滅亡問題에 대한 一考察-新羅의 膨脹과 關聯하여-」, 『慶北史

學』 4권.

천관우, 1991, 『가야사연구』, 일조각.

최병운, 1992, 「신라 상고의 영토 변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최완규, 2018, 「전북지역의 가야와 백제의 역동적 교류」, 『호남고고학보』 59권, 4-24쪽.

홍성화, 2014, 「己汶, 帶沙 지명 비정에 대한 일고찰」, 『사충』 82권, 185-212쪽.

## 2) 국외

今西龍, 1992, 「己汶伴跋考」, 『朝鮮古史の研究』, 近澤書店.

### <단행본>

강인구 편, 2001, 「대가야의 盛衰와 신라」, 『삼국시대연구 I』, 학연문화사.

곽장근, 1999, 『호남 동부지역 석곽묘 연구』, 서경문화사.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한국고고학사전-고고유물 편』.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김태식, 1997, 『한국사-7-삼국의 정치와 사회 III-신라-가야』, 국사편찬위원회.

김현구 외 3인 공저, 2003,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II)』, 일지사.

朴天秀, 2006, 「대가야권의 성립과정과 형성배경」, 『土器로 보는 大加耶』, 대가야박물관.

정구복 외, 1997,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학중앙연구원.

彭久松, 金在善 編著, 1996, 『原文 東夷傳』, 서문문화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기타>

연합뉴스, 2018.11.27., 「무주서 신라 서진(西進) 보여주는 무덤 9기 발견」.

운봉읍사무소, 2022, 『운봉읍 역사』, 남원시.

전북도민일보, 2012.09.12., 「남원 사석리 고분 발굴조사 학술회의 개최」.

천지일보, 2022.06.08., 「남원 사석리 고분군 전북 기념물 된다」.

<Abstract>

##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Gaya and Silla in the Eastern Region of Jeonbuk around the 6th Century**

Kim, Sun-sook\*

The Geumgwan Gaya was destroyed in 532 and the Daegaya was destroyed in 562. In the Japanese history book, it is recorded that Silla destroyed all 10 Gaya countries including Garakguk and Anraguk around 562. In academia, it is judged that the merger of Gaya by Silla was only a final surrender state before and after the destruction of Daegaya, but it was not done at a time.

However, among these 10 countries, the country is not yet known exactly as the country. In particular, the country is the last mentioned country among the small countries of Gaya, which was subjugated by Silla, and is relatively close to Sancheong, a state of the Gulsong country, and is located near the eastern part of Jeonbuk including longevity. There is no clear evidence, but if we estimate the location of the salt station, it is the most likely area. Hamyang is bordered by Geochang and Sancheong to the east, Namwon and Jangsu in Jeonbuk to the west, Hadong to the south, and Daejang to the north. Accomply, it is more reasonable for the Jolma-guk to be in Gimcheon, not in Hamyang, and for the Yimyea-guk to be in Hamyang, not in Uiryong.

Silla is expected to have strengthened its political influence on them through exchanges with various regions such as Daegaya and Geumgwan Gaya since the late 5th century. This is not related to the trend of Goguryeo and Baekje, that is, Baekje had to concentrate political and military power under the south of Goguryeo coming down from the north. As soon as Baekje was crowned, King Seong of Baekje sent an envoy to Silla or tried to maintain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Silla as much as possible, asking Silla for a blue army when he suffered from the invasion of Goguryeo. He also dispatched Baekje's army to the Gaya area to build a castle. Therefore, Baekje would have tried to manage Silla's advancement into the Gaya area through diplomatic measures.

---

\* Researcher, The Insitute of Koreanology

On the other hand, Silla would have been watching Baekje's trend through contact with Gaya forces in eastern Jeonbuk and trade from the late 5th century to the early 6th century. And Silla is thought to have grasped the situa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at the time of Gaya and actively implemented foreign policy to advance into the southern region. The route to the eastern part of Jeonbuk by Silla was the direction from Unbong Highland to Jinan Highland, and Namwon Wolsan or Durakri in the eastern part of Jeonbuk was the core hub for Silla to advance into Gaya as an inland transportation route and was also the place where iron production sites are distributed. In addition to the discovery of Silla-related artifacts here, Silla artifacts, which have been in the middle of the 6th century, have been found in Muju, Jeonbuk.

Key Words : Gaya, Silla, Jinan, Unbong, Yimyea-guk, Hamyang